

사설

정당 불자회가 할 일

각 정당마다 불교신행단체의 결성에 분주하다. 이미 '차민련 불자회'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어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연동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이단인으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할 예정이다. 추진중에 있는 신한국당은 늦어도 9월경에는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정당이 앞을 다투어 불교 신행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불자정치인들의 행태를 볼 때 분명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야당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는데 눈길을 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의 전술 전략 차원에서 이런 불교인 모임이 탄생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 정당의 불자결성에 대하여 우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불자정치인들의 자각과 의지를 토대로 새로운 신행행태를 추구하는 참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지금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개혁과 불교중흥을 이루어 민주통일정도를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하려는 대승보살의 서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이 결성되는 새로운 정당불교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교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지 바란다.

첫째, 불교신행단체의 성격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과 정치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치단체'가 아니라 '불교단체'이다. 불자로서 불·법·승 삼보를 믿고 공경하며,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행행태를 정립하는 보살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수행과 용맹정진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인 법회와 수련대회를 통해 신앙심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불교사상이 현실정치와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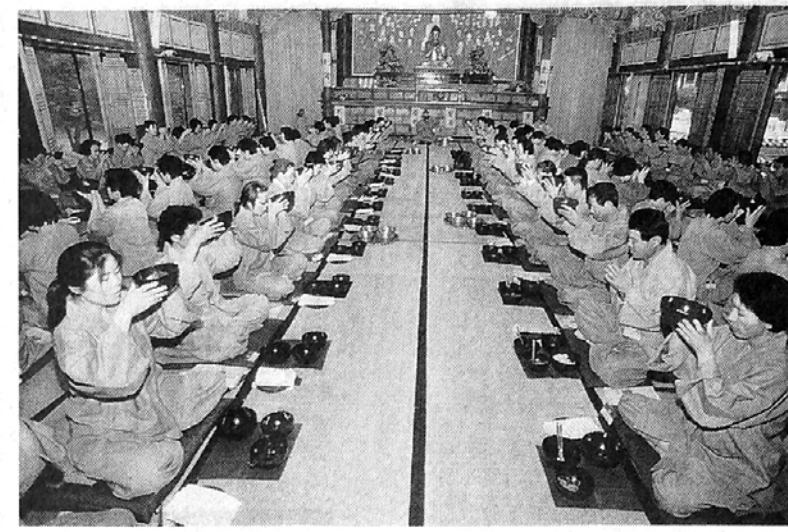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정치풍토·정치윤리의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밝은 햇살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부정·타락 선거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아오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 불법폭력, 금권·관권의 개입 등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사성계계를 타파하고 민주적 공화제를 주창하였으며, 화합된 승가공동체를 운영하셨다. 보살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따로 있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셋째,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불교신행단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당은 민주정치체제에 있어 가장 큰 정치적 조직체이며, 의회정치의 밑거름이다. 정당의 본래 기능은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정당의 구조와 활동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기와 중도사상에 입각하여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인·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각 정당의 불교단체는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연대협력하여 활동해야 한다. 같은 불자로서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화합 자비의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단을 지원하고 다른 불교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사회를 계도하며,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도 적극 동참할지 바란다.

-여름수련대회 참가열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년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6천여명이나 돼 수련대회 참가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해당사찰에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본사급사찰을 중심으로한 여름산사

여름산사 '단기출가' 수련대회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에까지 널리 인식되면서 대사회기여와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등 심보사찰을 중심으로 10여개 사찰에서는 일반인 2천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2~43일간 4~5일 기간으로 단기출가 수련대회가 열렸다. '현대불교'에서도 9명의 취재기자가 심보사찰 수련대회에 참가해 신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를 계기로 각 사찰의 단기출가 수련대회 의의와 열기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기자방담을 통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이 음식은 어디서 왔고..." 공양에 앞서 음식물 수행의 도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발우를 높이 들고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송광사 수련생들.

일상찌든 '나' 되돌아본 '단기출가'

여름 사찰수련 동참 기자방담

| | | |
|-------|-------|-------|
| 김원우기자 | 한명우기자 | 김종근기자 |
| 김재경기자 | 이은지기자 | 도필선기자 |
| 이윤호기자 | 오종욱기자 | 고영배기자 |

생활을 체험하려는 일반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포교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사찰에서의 '단기출가' 수련대회에 참여하기 급증하는 것은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을 벗어나 평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상에서 찌든 세속을 벗어나 출가수행들과 똑같은 탁속한 생활의 경험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지요.

-송광사 1차 수련대회에 동참한 72세의 노보살님의 경우 지난해도 참가했기 때문에 신청 접수하면서 바로 탈락했는데 끝까지 우겨 참가했다더군요. 이 보살님은 시종일관 타의 모범을 보여 수련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발원한 가족단위와 부부가 참석이 많아 보기에 좋았습니다.

불편하기로 치면 첫째로 좁으면서도 반응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생각 맛과 향기에 팔리지 않는 수행법인 발우공양은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운동과 연결돼 반응이 컸습니다.

행자교육식 운영 문제

-보통 스쳐지나가는 사찰에 갖든 의미와 아름다움 오묘한 진리가 스며있는 사찰의 조형예술에 대한 설명은 불교의 가르침과 접목된 교리 공부시간이었습니다. 송광사에서는 주지 현고스님이 직접 일주문에서 경내까지 거슬러 올라오며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표현된 사찰의 조형을 설명해 주었지요. 돌 한개 풀 한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어 일체만유에 존재하는 생명 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해인사는 산내암자순례를 가졌

는데 용성스님이 주석했던 용담선승 등 큰스님들의 체취가 스며있는 유서깊은 도량참배의 시간이었지요. 정말 일상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소중한 공부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취니취니해도 참회시간은 불자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땀이 나는 것이 내 자신의 업장을 녹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108배 정진에는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절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록 몸이 가벼워 지더군요.

-수련대회 참석자들의 근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련대회를 행자교육원처럼 이끌어가고 하더라도 자칫 엄격한 강조할 뿐 프로그램

보기가 민망했다고나 할까요. 대중들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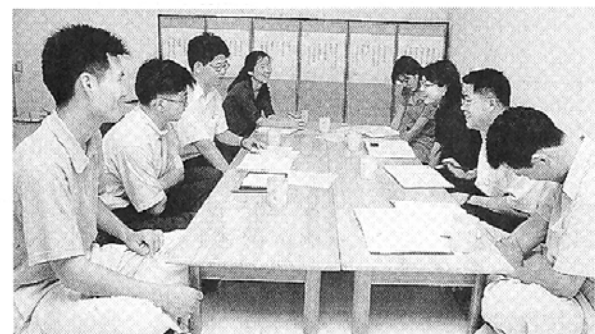
-사바세계는 참세계라는 스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는 한 거사님은 항상 하심하고 참는 마음을 간직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발원했습니다. 평소 산사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계를 받으면 못 자릴 것 같아서 발가가 두려웠다는 사람들은 계를 받고나서는 수행의 출발점인 계를 잘 지키겠다는 굳은 서원을 나타내기도 했지요.

美교포 "민족 뿌리 확인"

-송광사에 온 지용(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민)씨는 미국에서 지리사 고국에 대해 알고 싶어해 부모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참가한 경우입니다. 지용씨는 민족의식의 뿌리인

"묵언·백팔참회 통해 마음 공부 소중함 배워" 가족·부부참여 '눈길'... 지원자 전원수용 과제

72세 보살 모범... '부모은중경' 독송하다 통곡하는 거사도



◇심보사찰 수련대회에 참가한 본사 기자들은 수련대회의 의의와 향후방향을 대한 방담을 나눴다.

이 단조로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에서 평상시에도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수련대회 프로그램 실시했으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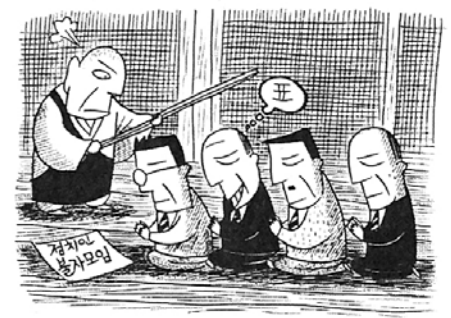
-계속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만 수련공간의 미비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내적인 공간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참여를 바라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지원자가 워낙 많아 탈락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오면서 사찰측이 이렇듯도 저렇듯도 없애는 난처해 하는 모습은

불교에 대해 뭔가 느끼는 공간이 돼 한민족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더 들떠들 말해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수련대회 참가자들은 수련대회를 회향하고 산사를 내려오며 이제는 자신들도 마음되는 비결을 알게 된 불자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한 소식 한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수련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 사찰의 모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만생각 하면...

신청자 폭주 '업무 애로'

-통도사 전문기반은 특성이 맞게 실시돼 특수계층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령층도 고르고 나름대로 전문적 종사자들에게 등질성을 갖게해 성과도 컸습니다. 공평한 화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와 관련한 신행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해인사 유경협자반은 엄격한 사중의 가풍이 그대로 반영된 수련대회였다고 봅니다. '절제'와 '깨어 있음의 미학' 이랄 수 있는 발우공양에서는 퇴소물을 여러번 마셨는

96년 가을 학기 제4회 자원봉사 시민대학개설

사랑넘치는 환한세상 만들기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녹색살림(가정)창단을 알립니다. (풀뿌리 가정환경운동)

| | | |
|--|--|--|
| <p>만인이 귀머지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는</p> <p>불교 기본교육</p> <p>부처님 일대기, 예불문, 섬귀의, 사후생원, 심대제자, 삼법인 12제 오온현, 연기의 전리, 업설 윤회설, 사성제 열반 해탈설, 분상 보살상 주불전사찰내건물 방문, 사찰내예법, 불자수행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사상, 불교교육:상도5계 수계, 법화경 사경 발행</p> <p>9. 11~12. 16(3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반~11시</p> <p>방송 그 엄청난 영향력에 함께 선용하고 하는</p> <p>방송 모니터교육</p> <p>방송과 시청자, 방송과 가정, 시청자 운동과 방송모니터, 방송모니터 실무 (보고서 작성요령), 광고제작-대중문화론, 방송비평론-방송매체론, 비평가리니케이션, 방송매체론, 광고 캠페인론</p> <p>9. 10~12. 16(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30분~12시반</p> | <p>죽음도 삶의 한 과정임을 장중하게 일깨우는</p> <p>바하마(불교 호스피스)교육</p> <p>Hospice의 • 암환자의 말기현상과 Hospice • 환자의 가족의 심리간호 • Hospice자원봉사자의 역할 •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관 • 특수 간호학 실제 • 열반후 영생방문과 실제 • 21세기와 불교사회복지의 과제 •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p> <p>9. 12~12. 16(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p> <p>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그 녹색평화를 실현하는</p> <p>환경교육(여성지도자과정)</p> <p>(총 6) 불교의 환경문제 (수질오염)책이기는 하천/담을물 지키기 (대기)기대오염현황과 관리대책 (쓰레기)통도의 그린과 쓰레기문제 (식물)방사의 위기 식물공해 (운명)현대문명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지구환경)전지구적 살림과목과 민간운동 (재활용)재활용산업 활성화방안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증취득(전원) *명예환경감시원 중앙회의 연대하여 3개월 정기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여성 환경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p> <p>9. 16~12. 16(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시</p> | <p>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랑의 의손되는</p> <p>차비수지침교육(초급반)</p> <p>수지침이란? 수지침 기본용어 전통 필자의 관계 달의 원인과 범위 상승요법/인상요법 구급법/침구술/역시 수지침 치료의 한계 초급과정 총정리 중급반/고급반(택전반)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p> <p>9. 2~12. 16(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p> <p>상과 일의 불이행은 불교적행사를 위한</p> <p>원앙상고교(1단계)</p> <p>동일행정의원전 가정의정족에 의한 정족식 일반행정의 속본사식 영음의, 상복의, 영결의, 화장의, 매장, 발인관행, 한국인의 제례의식, 시주의식, 일반후 영음 실제, 수시실습, 원앙상 고경실습, 장영법 1단계 원앙상 영남교육 2단계 원앙상 영남교육 3단계 원앙상 강사교육 *작업실습(원앙상 강사반) 매주 토요일(오후 3시) 장사:심민준 동방불교대학교수</p> <p>9. 14~12. 16(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30분~3시</p> |
|--|--|--|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자원봉사경험은 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봉사고유번호를 받은 후 저축된 봉사실적에 따라 봉사기록메달 및 적절한 예우를 받습니다.
 - 본회 주관 총의인간사업에 우선적 혜택을 받습니다.
 - 1. 원앙상 영남봉사 신청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 2. 녹색살림 연락망을 통해 생활에 유용한 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물물 교환및 구입시 혜택이 있습니다.
 - 명상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인생의 최고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 교육일시 : 1996. 9. 2~12. 16(3개월)
□ 교육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 접수기간 : 1996. 8. 1~9. 5
□ 접수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최안과3층 종로경찰서 부근)
□ 교육비 : 무료
□ 법화경 사경경전은 각자 구입
□ 접수문의 : ☎ 723-6258, 723-6259 FAX 723-6257
※ 교육후 상담을 통하여 전원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차량안내
<일반버스> 2, 8, 20, 84, 205, 33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좌석버스> 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 하 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종로경찰서 출구)

- 하늘과 땅이 열리리라 만생명의 변명을 소망하며 지구는 행복했습니다.
- 「나와 만생명과 자연」은 하나라는 생각이 본래 지구의 생각이었으므로 아직 성숙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 자연을 해코지 할 때도 지구는 멀지 않은 날 그들에게 찾아올 찬란한 영적각성을 예견하며 신음소리내지 않았습다.
-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지구의 가르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선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모여 묵묵히 녹색살림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검소함 속에서 일상을 열고 담은 선조님과 현대에 이르러 고군분투하는 환경단체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고마운 마음 가득담아 경례 올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불자들에게 풀뿌리 가정환경운동의 정착을 발원하며 녹색살림의 창단을 알립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녹색살림에서 하는 일」
1. 녹색 의식 개혁(풀뿌리 가정 환경 운동의 정착)
 2. 우리 농촌 살리기(유기농 장려/도농 직거래/농촌 일손돕기)
 3. 국토푸르게 가꾸기(국내의 나무심기, 보호하기)
 4. 환경 의류은행(한우수집 국내외분배)
 5. 알뜰 녹색가게(재활용 정보교육및 물물교환)
 6. 환경지침수립실천 및 캠페인
 7. 환경문화 가꾸기
 8. 지역환경 정책참여(지역환경문제연대)
- 명 칭 : 녹색살림(가정)
□ 발족일시 : 1996년 10월 15일 오후 1시(예정)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1층 불교회관